

PHOTO ESSAY

사진산책



한강 노들섬

중간

—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
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.
특정 주제나 내용에
치우치지 않는
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
말의 과잉 시대다. 유튜브와 SNS를 열면 말이 홍수처럼 쏟아진다. 전문가 전성 시대이기도 하다. 기존 매체는 물론 온라인 공간에도 말의 고수가 넘쳐난다. 정치와 이념, 철학, 인생, 건강에 재테크까지 저마다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낸다. 최근에는 생성형 AI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. 말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주장도 함께 늘어났다. 같은 사실을 두고도 정반대의 해석이 맞선다. 말이 많아질수록 정작 내게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가려내기는 더 어려워졌다. 예전에는 스승과 책, 언론이 중심을 잡아주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무수한 말이 대신하고 있다.

이런 시대에 무엇이 내 생각의 중심을 잡아줄까. 이 물음 앞에서 선뜻 답하기 어렵다. 쏟아지는 말과 정보를 스스로 정리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. 걷기든 글쓰기든 명상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쏟아지는 말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남의 확신을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한 채 살아가기 쉽다. 말이 넘쳐날수록 침묵과 사색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. 생각의 중심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.

이호준 Lee, Ho-Joon | 성공회대 강사·사진가

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여덟 차례의 개인전과 아홉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 <직조>와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다수의 인쇄, 방송 매체에 소개되었고 지자체, 공공기관, 사진모임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 대학에서 사진학을 강의하고 초등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.



언제부터 문자메시지(SMS)는
피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것 뿐.

서울시립미술관